세계무대 누빈 빛고을 아트, 빛나는 미래 마주하다

신호재作 'R-26028'

이혜원作 '설경II'

박정선作 'Perform-#4'

광주미협, '2026 광주미술 해외갤러리 초청전 : 아트광주 커넥트' 결과보고전…21일까지 광주미술관 금남로분관

세계 무대 소통 가능성 입증…광주 미술 저력 지역민과 공유
뉴욕·울란바토르·베를린 교류전 참여 작가 작품 한자리에

세계 무대를 누빈 광주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이번 전시는 현대 미술의 흐름이 교차하는 뉴욕, 넓은 자연을 품은 울란바토르, 다채로운 문화가 섞이는 베를린이라는 각기 다른 낯선 환경에서 각자의 조형언어로 소통을 이끌어낸 지역 작가들의 작품 저력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자리다.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이하 광주미협)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2026 광주미술 해외갤러리 초청전 : 아트광주 커넥트' 결과보고전을 개최한다.

광주미협이 주최·주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미국과 몽골, 독일에서 진행된 해외 교류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작가 12명의 작품을 지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트광주 커넥트'는 아트광주와 연계해 지역 미술인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각국의 갤러리에서 광주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해외 관람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미국 뉴욕 '아시안 앤 아메리칸 아트 화운데이션(AAAF)' 전시에는 박정선, 신호재, 정기주, 조용남 작가가 참여, 물감과 혼합 재료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추상적 형태의 작품을 선보이며 각자의 조형 세계를 소개했다.

정기주作 'untitle'

이현숙作 'Scent-Wild Rose'

이어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아트갤러리'에서는 김종경, 유재원, 윤성민, 조선아 작가가 작품을 선보였다.

한지와 천 등 고유의 바탕재를 활용해 일상과 기억을 풀어낸 작업으로 현지 관람객을 만났다.

독일 베를린 '쿤스트40(Kunst40)'에서는 류현자, 이영숙, 이현숙, 이혜원 작가가 참여해 합죽선과 수채, 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연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광주미협 관계자는 "서로 다른 기후와 문화를 가진 낯선 곳에서도 우리 작가들의 뚜렷한 작업은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며 "이번 결과보고전이 세계 무대에서 소통 가능성을 입증한 광주 미술의 저력을 지역민과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 지역 작가들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튼튼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

예술혼 새긴 '돌' 생명을 품다

남포미술관, 내달 1일까지 장성재 조각전

자연의 순리를 지켜온 돌이 오랜 연마를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지킨 조각으로 태어난다.

남포미술관은 오는 11월1일까지 장성재 조각전 'Rafting'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일진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단단하고 정적인 물질인 돌에 생명과 시간의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 온 장성재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한다.

장성재 작가는 단단하고 가공하기 어려운 오석(烏石)을 주재료로 깎고 자르고 연마하는 오랜 노동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조각으로 변화시킨다.

전시의 주제인 '래프팅'(Rafting)은 자연의 힘에 맞서기보다 그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기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작가의 작업 태도를 상징한다. 거센 물살을 거스르기보다 유연하게 흘러가듯, 작가는 자연의 순리와 돌이 품은 시간을 따라가며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장성재의 조각은 단단한 물질을 인간의 의지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생명력과 호흡을 맞추며 노동을 놀이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다.

유연하게 이어지는 곡선과 패턴, 그리고 여백의 미를 살린 비워낸 공간은 고요함 속에 역동성을 품은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을 드러낸다. 또한 작품에서 보여지는 '안과 밖', '거침과 매끄러움', '채움과 비움'과 같은 조형적 대비와 균형은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동양적 사유를 보여준다.

'Rafting'

곽형수 남포미술관장은 "단단한 물질이 작가의 치열한 노동과 유희적 태도를 거쳐 새로운 생명과 움직임을 품은 존재로 거듭나는 경이로운 여정을 전시를 통해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

'톡톡튀는 이들' 눈부신 청춘의 열정을 보라

ACC, 18일까지 '지역 예비 예술가 발굴전Ⅱ' 두 번째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2026 ACC-지역 예비 예술가 발굴전Ⅱ'의 두 번째 전시 '메아리: Echo of Youth'를 오는 18일까지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CC는 지역 예술가와의 상생을 위해 예비 예술가들과 신진 작가 및 원로 예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할애하는 전 생애적인 예술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 4-5월 광주예술중·고와 함께 '2026 ACC-지역 예비 예술가 발굴전 I'을 선보였으며, 9월부터는 지역 대학과 함께 '2026 ACC-지역 예비 예술가 발굴전Ⅱ'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조선대 문화콘텐츠학부 도자디자인전공 학생 작품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남대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학생 7명(김예슬, 박현정, 임은결, 정서연, 하정민, 허은서, 황지우)이 참여하는 '메아리: Echo of Youth'로, 스무살 무렵 청춘에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을 담은 회화작품 28점으로 소개한다.

전시는 '청춘의 기억'에서 출발해 '일상의 빛'과 '관계의 형성', '존재의 충돌'과 '침묵의 여운', '상처의 수용'을 거쳐 '남겨진 질문'에 이르기까지 각 서사를 일곱 단계로 연결한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전시 제목의 '메아리'처럼 마음에서 시작된 감정과 경험이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닿아 작가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예비 예술가에서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라면서 "ACC는 지역의 젊은 예술 인재들이 역량을 펼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지속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복 기자

박현정作 '연생II'